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130호 【루게 제 24543호】 주제 103 (2014)년 5월 10일 (토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4》를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에서 하신 강령적인 말씀을 높이 받들고 항공군의 싸움준비완성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4》가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리설주 동지와 함께 서부지구 작전비행장을 찾으시고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4》를 지도하시였다.

황병서 동지, 변인선 동지, 서흥찬 동지, 조경철 동지, 윤동현 동지, 리병철 동지, 김영철 동지, 오금철 동지, 박정철 동지, 장동운 동지가 동행하였다.

김기남 동지, 최봉해 동지, 김여정 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의 모범적인 전투비행사들이 경기를 함께 보았다.

경기대회장소에는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가 게양되어있었으며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우리식의 비행술방안을 더 많이 연구완성하자!》, 《항공 및 반항공군싸움준비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키자!》, 《모두다 주체적인 항공 및 반항공군전법에 정통하자!》라는 구호들과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



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4》의 개막을 선포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출격명령을 내리시였다.

련합부대장조와 군부대장조로 나뉘어 진행된 경기대회가 시작되자 요란한 폭음이 울리는 속에 붉은 매들이 편속 하늘로 날아올랐다.

비행지휘성원들은 급상승반전, 전투선회비행, 정지비행, 1만 8,000여m의 상승한도비행, 30m의 초저공비행, 공중기교비행 등 어려운 비행동작을 훌륭히 수행하면서 목표구역에 명중탄을 퍼부었다.

비행훈련을 마친 비행지휘성원들이 맵시있고 재치있는 착륙을 진행할 때마다 관람자들은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터쳐올리었다.

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4》라는 글발이 세워져있었다.

또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오전 9시,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타신 비행기가 서부지구 작전비행장에 도착하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전지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애국가가 주악된 다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였다.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인 조선인민군 항공군대장 리병철 동지가 개막사를 하였다.

그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4》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에 따라 건군력사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뜻깊은 훈련경기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시였다.

항공무력의 강화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계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선군령도의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여러차례나 이번 경기대회와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친히 경기대회의 명칭

도 맡아주시였으며 대회조직과 준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몸소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경기대회가 독특한 내용과 형식으로 전례없는 규모에서 열리게 된것은 주체의 항공군건설사에 특기할 력사적사건으로 된다.

그는 비행지휘성원들이 이번 전투비행술경기대회를 조직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숭고한 의도에 맞게 경기에 높은 정치적열의를 안고 참가함으로써 항공군적으로 비행술을 높이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키는데 적극 이바지하리라는것을 확신하면서 《조선인

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과감하고 능숙한 비행훈련을 주의깊게 보시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오전경기가 끝난 다음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에서 마련한 야전식사에 초대되시였다.

점심식사의 여가시간에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협주단의 공연과 조선인민군군악단의 연주회가 진행되어 경기대회의 열기를 한층 북돋아주었다.

2 번 으 로 계 속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 - 2014》를 지도하시였다



1 번 에 서 계 속

오후에도 계속된 경기대회에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오금철 항공군상장을 비롯한 비행지휘성원들이 열적의 폭음소리를 높이 울리며 어제 날의 자기들의 비행술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비행지휘성원들이 자기앞에 맡겨진 비행임무를 훌륭히 수행한데 대하여

지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이번 경기대회를 조직한 목적은 비행지휘성원들의 가슴속에 비행훈련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사상과 요구를 다시금 깊이 심어주고 그들이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호를 부르며 비행사들의 앞장에서 훈련을 진행함으로써 항공군안에 백두산 훈련열풍이 용암처럼 끓어번지게 하자는 데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비행사들의 기술기능수준이 아무리 높고 비행기의 전투동원준비가 잘 갖추어졌어도 지휘성원들이 준비되지 못하면 부대앞에 맡겨진 작전전투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항공군이 적들과의 싸움에서 최고사령부의 작전적구상과의 도를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비행지휘성원들에게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지휘

성원들이 높은 전투비행술을 소유함으로써 부대안의 모든 비행사들을 하늘의 결사대로 억세게 준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첨단감시기계로 평가한 점수가 종합되고 등수가 결정되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가 시상식발언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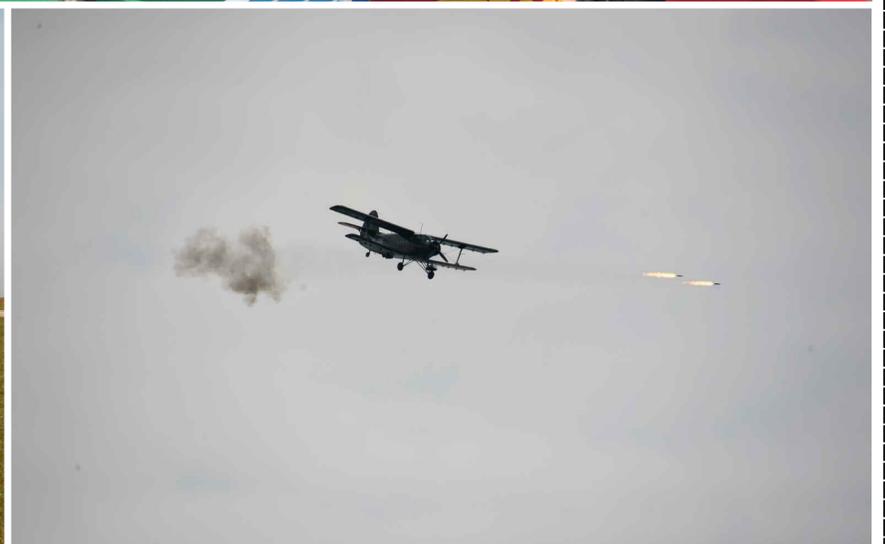
그는 미제와 피뢰역적패당의 광란적인 반공화국대결소동으로 나라

의 정세가 전쟁접경으로 급격히 치닫고있는 때에 항공군안의 비행부대 지휘성원들을 모두 불러 전투비행술경기대회를 진행한것은 천만대적도 발아래로 굽어보시는 회세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만 내리실수 있는 대용단이며 최고사령관동지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의 승리이라고 말하였다.

4 번 으 로 계 속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 - 2014》를 지도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4》를 지도하시였다



2 면 에서 계속

그는 경기에 참가한 모든 비행지휘성원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앞에 자기의 실전능력, 비행지휘능력을 겸겸받는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일상적으로 편마한 비행술을 잘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경기대회성적을 발표하였다.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 858군부대장 리일찬, 제 458군부대장 유학철, 제 344군부대장 리명호가 조별순위에서 1등을 쟁취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우승을 쟁취한 비행지휘성원들과 단위에 직접 시상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비행지휘성원들의 경기성적을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이 경기대회폐막을 선언하였다.

경기대회장소에는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며 비행기에 오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4》는 모든 비행사들이 당과 혁명을 하늘길에서 보위한다는 남다른 자부심을 안고 유능한 전투비행사로 튼튼히 준비함으로써 결전의 그날이 오면 적진에 제일먼저 돌입하여 조국통일대진군의 장쾌한 폭음을 온 세상이 들썩하게 울리고야말 용감무쌍한 김정은비행대의 전투적기상을 만방에 떨칠 뜻깊은 계기로 된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에게 답전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또다시 높이 추대되신것과 관련하여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어온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에게 답전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습근평 총서기께

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쿠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인 라울 카스트로 루스 쿠바공화국 내각 수상, 람 바란 아다브 네팔 대통령, 폴란드 마리아노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레인 세인 만마렌 방글라데시 대통령, 짜히아긴 엘베그 도르취 몽골 대통령, 노르돔 시하모

니 캄보디아왕국 국왕, 웨남사회의주의 공화국 주석인 쩡응 면 썩 국왕 및 안전리사회 위원장, 조제프 까빌라 가방게 콩고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 주제 에두아르두 두스 산투스 앙골라공화국 대통령, 아브엘아지즈 부메플리카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대통령에게 답전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답전

들에서 열렬한 축하와 충심으로 되는 축원을 보내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시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와 해당 나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축원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보도사는 김정은최고지도자께서 조선인민군장군 82표에 즈음하여 서남해상의 주요적대상물타격임무를 맡고있는 장거리포병구분대 포사격 훈련을 지도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최고지도자께서는 사격순차와 방법을 정해주시고 포사격을 개시할

데 대한 명령을 내리시였다.

그이께서는 포탄들이 목표를 타격할 때마다 명중이라고, 정말 잘 맞았다고 하시며 대민축을 표시하시였다.

중국의 중앙TV방송, 홍콩 봉황위성TV방송, 인터넷홈페이지 동북망, 로씨야의 이따르-파스통신, 인터넷신문 《브즈글라드. 루》, 인터넷통신들인 가제다. 루, 블러드. 루, 인터넷홈페이지 《아무르부르그》, 이란

신문 《이란 뉴스》, 인디아의 신문 《타임스 오브 인디아》, TV방송, 지 뉴스TV방송, 싱가포르 TV《아시아스 식통로》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중국의 홍콩 《대공보》, 홍콩 봉황위성TV방송, 인터넷홈페이지 동북망, 라오스통신, 수리아중앙TV방송, 인디아의 신문 《타임스 오브 인디아》, TV 방송, 지 뉴스TV방송, 만마신문 《뉴 라이트 오브 만마》, 싱가포르 TV《아시아스식통로》, 케바는신문 《칼 줄후

리야》, 튀르키예신문 《투데이즈 자만》, 프랑스국제라디오방송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진행되는데 대하여 전하였다.

중국, 라오스, 수리아, 싱가포르, 케바는, 웨남의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을 모시였다.

【조선중앙통신】

자주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지도사상 국제사회계가 격찬

오늘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자주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있어서 귀중한 사상리론적재보로 널리 공인되고있다.

로씨야신문 《올라지보스도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인민의 념원과 요구에 맞게 혁명의 총적목표와 방향을 밝히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의 합법적성과 전략술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지도사상은 오직 김일성-김정일주의밖에 없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조선혁명의 실천속에서 그 과학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검증된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진국위원회는 인터넷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인류자주위업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은 그 창시자이신 김일성주석과 함께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펴놓고 생각할수 없다.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를 천륜으

로 지니신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일제시대 로동계급의 투쟁사를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하시였다.

그 과정에 선행한 혁명리론으로는 현실대가 제기하는 문제들에 올바른 해답을 줄수 없다는것을 명백히 밝히고 오직 김일성주석의 혁명사상, 주체사상만이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될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시였다.

그이께서는 1974년 2월 19일에 발표하신 로작에서 김일성주석의 혁명사상이 주체의 사상, 리론 및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라는것을 천명하시고 주체사상을 주석의 존함판만 결구시켜 부를수 있는 새로운 독창적인 사상, 김일성주의로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 위원장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동지의 고귀한 혁명유산인 주체사상은 인민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철이며 반제자주를 위한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위대한 무기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선대수령들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였다.

자주위업과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혁명사상을 그분들의 존함으로 부르는데는 옳바른것이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계급주의자들과 온갖 반동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인류자주위업을 승리에 이끌어나갈수 있는 지침이다.

우리는 이 불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오랜 세월 그처럼 넘연해온 자주적이며 평화로운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길로 나아가야 한다.

베루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성명하였다.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세계가 공인하고있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변함없이 계승발전되고있다.

결세위인들의 사상과 업적은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에게 있어서 승리의 표대로 영원불멸할 것이다.

사회주의와 세계자주화투쟁의 기치인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조선중앙통신】

시초

끝까지 이어가리 백두의 행군길

비가 와도 가야 할 길
눈이 와도 가야 할 길
원수님을 따라나선
이 조선의 운명의 길 백두의 행군길!

우리 원수님 못 견디게 그리운지...
항일의 그 나날 바로 그밤에도
수억만 백두에서 장군별 그리며
투사들 이렇게 잠 못 들었지

한밤이 깊을수록 더더욱 그리운 별
그 별이 우리 못살 운명의 별
아, 가슴속에 백두같은 총성이 울려나
백두산의 밤이여!

검을검을 투사들을 생각하며
원수격멸의 피를 뚫으며
인민군지휘관들이 헤쳐간
어제날의 피어린 싸움길 백두산의 길
엄혹한 백두의 칼바람이
지동지마 불어치는 눈보라를 뚫고
불꽃의 용사들이 자욱이 걸어간
한줄기 행군길-

생눈같이 누워도 보고
밀림속에 우등불도 피워보고
이렇게 날과 날을 거쳐
쉬임없이 이어간 발자욱 발자욱...
오, 눈여겨보라 눈여겨보라
우리 원수님 백두산에서 카운선 용사들이
발톱을 무성케 곤두세우고 지나간
백두산(호랑이)들의 발자욱이다!

아, 백두산!

차영도

우리 혁명이
이 나라 반만년력사애
처음으로 메고나섰던 그 배낭이
자그마한 귀틀집에
생각깊이 걸려있는 산

이 배낭과 더불어
투사들의 권총이
태고의 정적을 깨치던 그 첫 총성으로
백두산일가의 총대혁명의지를
만대애 이어놓은 산

바로 이 산애
불러 마음 절로 경건해지는 이 산애
백뼌을 꺾일지언정 굽힘이 없는
조선의 낱과 힘이
뿌리깊이 숨쉬고있나니

산애, 백두산아!
우러러 다함이 없는 성악의 메부리여
그대가 편편한 산발마다에 고이 간직해
그 선철의 무개앞애

내 깊이 머리를 숙이노라
이 나라의 억만대후손들이
천추를 두고 잊지 못할 한몫의 미시
가르가
오늘도 그날의 눈보라속에서
끝까지 가야 할 혁명의 한길로
우리를 소리쳐부르는 산

혁명을 위해선 살아 청정했던
20대의 그 애끓음도 기꺼이 이 산애
그 길에선 자기의 허도 서슴없이 들어
끓는

아, 것처럼 강직한 혁명절개가
지금도 우리의 피를 끓게 하는 산

오르라, 길이 닳고 산이 닳도록
부디 이 성산애 오르라!
오르면 불꽃의 냇을 깨우치는 백두산
오, 우리의 김정은원수님이 이 산애에
천만군민을 마주세워 영웅으로 키우
신다!

빨찌산녀전사들이 왔다

리명옥

눈덮인 백두산기슭 전적지마을애
매이년 반가운 소식 들개바람 일었네
-우리 마을애 빨찌산녀전사들이 왔다
-모란봉악단이 왔다

얼마나 백두산마을애 어울리는 이름인가
대번애 정이 드는 이름 <빨찌산녀전사들>
금방 백두산을 내린듯
모두들 풀풀오른 군복 단정히 입었네

일찌기 백두산이 입혀준 혁명의 군복
원수님 손수 입혀 보내주신 빨찌산군복
전적지마을의 불빛밝은 무대에서
빨찌산녀전사들 노래부르네

노래소리 아름답고 불빛 또한 밝은데
우리 마음 송엄히 솟아오르는 백두산
생각도 깊어지네 깊어만지네
원수님 안겨주신 백두산! 백두산!

신념을 두고 말할 때

김석천

눈덮인 백두의 산야에서
피어린 자욱이라는 그 값비싼 의미를
이 가슴애 새겨보라
내 신념이란 이 말을 다시금 외워본다

정녕, 신념이란 무엇인가
무엇이기에 이 나라 사람들 백두산애 올라
조국과 혁명앞에서
굳이 이 신념 칼날같이 버려안는것인가

굳게 믿어 내다본
해방조국의 그 눈부신 새 아침

신념이여 너는
죽음의 장막이 무겁게 드리운
그 절망의 철창속에서도
원수들을 공포로 전복케 한
혁명승리의 그 불같은 만세소리

그것은 백두산의 냇이었고
백두산의 절개였으니
신념이여 너는 백두산
백두산은 너를 닮아서 세운 메부리더라

말해보자, 신념이여 너는
한치라도 가려볼수 없는
그 엄혹한 눈보라광야에서도

백두의뢰성

-대흥단전투장소에서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관들의 사적경기가 있었다-

한광춘

뢰성이 울었다
걸음걸음 필승의 신념을 버린
우리의 총대대로가
여기 백두산애 총성을 울렸다

팡막한 밀림을 향해
은과도 일어서더니
울려했다
이 땅의 천만산악이

물지 말라
이 총성에 무엇이 실려있는가를
일찌기 백두산애서 무겁게 울린 총성
삼천리 한끝까지 닿아
빼앗긴 조국을 찾았다

다시금 강도를 혼든것이다
민족의 피타는 속담을 안고
침략의 아성 순간애 던져버릴
노한 불의 흐름이 터졌것이다

백두산애 총성울러 안아온
항일의 승리
혁명의 정상이
또다시 불피성을 터친 푸른 하늘애
이제 조국통일대전승리의 환호성 우렁
차리라

아, 백두산의 뵈성이 천지를 진감할 때
은겨레 보았다
천만가닥 눈부신 해살을 휘감고
그리도 아름답고 번영하는 통일조국이
백두산봉에서 태어나는것을!

밀림속의 발자욱

리동수

-눈보라치는 백두산애 올라보라!
-밀림속의 피어린 길 걸어보라!

원수님의 명을 받은 인민군지휘관들이
백두의 장성을 헤치며 행군해갔다

인민이 사랑하는 새시대의 영웅작곡가들 (2)

여성작곡가 우정희의 창작활동을 더듬어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진실하고 힘있는 음악형상은
작곡가의 높은 사상적소양과
불타는 열정, 풍부한 정서로부
터 흘러나오는것이다.』
선군혁명의 한축수배바퀴를
음악예술의 위력으로 힘있게
떠밀어가는 여성들속에는 혁명
의 준엄한 폭풍우를 노래로
웃으며 헤쳐나가는 여성작곡가
도 있었다. 그가 바로 영웅작곡가
우정희이다.
관록있는 예술단체체인 민수
대에출단과 왕채산경음악단,
천천보전자악단에서 작곡가로
활동한 그의 창작생활은 국보적
인 예술단체인 모란봉악단의
눈부신 공연활동과 더불어 최
전선기회를 맞이하고있었다. 얼마전
그는 민족최대의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를 수
여받았다.
세 노래가사와 악보가 실린
신문지면에 <작곡 우정희>로 소
박하게 소개되곤 하던 한 여성
작곡가의 이름이 당보의 지면에
사건과 경력, 창작곡들과 함께
대서특필되었다.
인민들에게 크나큰 힘과 용기
를 안겨주는 훌륭한 명곡들을
창작한 한 여성작곡가들 노래로
만 알고있었던 사람들은 그분들이
해방탑과 조련군렬사들의 묘애
화환들을 진정하였다.
또한 청진주재 로씨야연방
총명사관 성원들이 청진시에 있는
해방탑과 조련군렬사들의 묘애
화환들을 진정하였다.
『영국 <조선의 힘>을 작곡한
사람이 군복입은 여성작곡가였
구만.』 <『뿌리가 되자』, <인생
의 영광>도 우정희작곡가가 지
었소.』...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은 녀
성작곡가에 대한 인민들의 존경
과 사랑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지고있다.
주제 71(1982)년에 창
작한 노래 <한생을 바쳐가자

우리 나라 리세웅선수
2014년 아시아 청소년 레스링
선수권대회에서 영예의 금메달
쟁취

【평양 5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우리 나라의 리세웅선수가
2014년 아시아청소년레스링선
수권대회에서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8일부러 타이에서 시작된 이
번 대회에는 우리 나라와 이란,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23개
나라와 지역의 남녀선수 300여
명이 참가하고있다.
남자고정형 42kg급경기에 출
전한 리세웅선수는 우즈베키스
탄선수들 8:0으로, 인디아선수
를 10:0이라는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이기고 결승경기에 진출
하였다.
그는 자기의 특기와 다양한
기술, 완강한 투지를 남김없이
발휘하면서 이란선수를 보기 좋
게 이기고 우승하였다.
남자고정형 50kg급경기에서 동메달을
받았다.
성심성의를 다하
여 하루빨리 완
페되도록 하였으며 박정준, 손
재천, 김세훈등무를 비롯한 중
업원들도 인민군대후방가족들
의 생활을 돌봐주기 위한 사업
을 잘해나가고있다.
직장에서는 일군들과 종업원
들속에서 발휘되는 소행들을 널리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진행하고있다.
로동통신원 김봉일
때에 자신들의 깨끗한 총정을
바치었으며 주물작업반 최승주
동무를 비롯한 여러명의 종업원
들은 뜻밖의 화재가 발생하였을때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셔내오는 수행결사
옹위의 도움을 보여주어 많은
사람들의 감명을 자아냈다.
리춘곤, 유봉일동무를 비롯한
종업원들은 앓는 동무를 위해

로씨야연방대사관 성원들
해방탑과 조련군렬사들의 묘애 화환
진정

로씨야의 위대한 조국전쟁승
리 69돐에 즈음하여 주조 로씨
야연방대사관 성원들이 9일 해
방탑에 화환을 진정하였다.
해방탑에는 조선인민군 명예
위병들이 서있었다.
화환진정에는 알렉산드르 켄
모닌 로씨야연방 특명전권대
사, 대사관성원들과 주조 여려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
인민조직당대표단 도착

남쪽으로 읊음바총비서를 단
장으로 하는 나미비아 서남아
프리카인민조직당대표단이 9
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박근용 조선로동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맞이하
였다.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
인민조직당대표단
단어 9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대표단 귀국

부흥지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
는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대
표단이 9일 비행기로 귀국하였
다.
【조선중앙통신】



우리의 자위권행사는 누구도 막을수 없다

남조선피괴들이 우리의 자위권행사를 겁고들면서 반공화국대결책동에 계속 달리고있다. 피괴패당은 《북의 핵시험, 미사일시험가능성》을 운운하며 저들이 《연일히 주시》하고있다는, 《도발》하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강도높은 제재》를 가하겠다고 하고 고아내는 한편 미일상정들과 함께 대응책을 세운다곤 분주함을 피우고있다. 박근혜는 얼마전 우리의 자위적인 핵활동과 로켓발사를 시비증상하면서 남조선행을 행한 미국상정에게 보자 《강도높은 제재》와 《대북공조》를 구걸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변나라에도 저들과 보조를 맞추어달라고 빌붙는 추태를 부리었다. 피괴호전광들은 얼마전 서해상에서 실시한 우리 군대의 정상적인 포사격훈련에 대해서도 이리저리거꾸로 허튼수작을 늘어놓으며 맞대응하겠다고 허세를 부리었다.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안전을 위한 우리의 자위적인 조치를 《도발》과 《위협》으로 악의에 차서 시비증상함으로써 대결소동을 강화하기 위한 명분을 세우고 외세와 함께 반공화국압살책동의 도수를 더욱 높임으로써 재빠르게 배진 대결야망을 어떻게 하나 실현해보자는것이 그 목적이였다.

피괴들이 우리의 자위권행사를 더무럽히며 겁고들며 반공화국대결소동에 피는에 뒤여 남뛰는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파멸적인 망동이다.

우리가 최근 로켓발사와 포사격훈련을 진행한것은 남로 악랄해지는 적대세력의 무분별한 침략적조동을 짓부시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자위적인 조치였다.

우리는 올해초부터 여러 기회를 통하여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북남관계의 개선을 위해 남조선당국에 군사적대결행위를 중지할데 대해 제의하고 주동적으로 대담한 실천적조치들을 먼저 취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핵전략격격을 남조선에 투입하여 우리를 엄중히 위협하였으며 지난 2월말부터 피괴호전광들과 함께 사상 최대규모의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해나섰다. 이 전쟁연습은 규모와 기간, 내용과 성격에 있어서 지난 시기와 대비할수 없는 극히 도발적인 북침핵전쟁연습이였다. 호전광들은 핵잠수함, 미사일순양함 등 수많은 핵전쟁장비들을 남조선에 집결시키고 《맞춤형억제전략》과 《국지도발공대비계획》 등에 따른 불량난들을 편이여 벌려놓았다. 특히 대규모의 연합사육훈련인 《쌍용》은 그 무수 《급변사태》시 《핵시설장악과 평양점령》을 노린 매우 도발적인 불량난으로서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려는 미국과 피괴호전광들의 흉악한 기도를 뚜렷이 드러냈다.

원수들이 칼을 끌고 덤벼드는 판에 전쟁의 불길이 터지기만을 앉아 기다릴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었는가.

핵에는 핵으로, 미사일에는 미사일로 단호히 맞서야 한다. 우리가 어디 당장 화극압살책동이 최절정에 달하고있는 오늘날의 존엄한 정세하에서 자위적군사력을 백방으로 강화할 의지를 더욱 굳게 버리는 정철

북침전쟁연습행동에 매일같이 매달리며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극도로 격화시키고 사태를 전쟁경계로 서슴없이 몰아가는 저들의 호전적행동은 아무 문제도 없고 남로 가증되는 침략위협에 대응한 우리의 자위적조치는 《도발》이라는 미국과 피괴들의 남장조적인 꾀변은 어디에도 통할수 없다.

남조선에서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막은 비록 내렸지만 북침전쟁도발소동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이제 몇달후 벌여질 미국과 피괴들의 《올리프 트리》(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조선반도에 또다시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를 조성하게 될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병진로선인 가리키는 길을 따라 자위적국방력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는것은 너무나 지명된 리치이다.

지난날 조선반도는 대국들의 리권쟁탈을 위한 치열한 각축전장이였다. 그때 우리 민족은 자기를 지킬 힘이 없었던것에 의해서 운명을 통탄당하였다. 오늘날 세계무대에서는 대국들의 자들의 강권과 전횡으로 주권국가들이 자주권을 유린당하고 파괴와 살육을 강요당하고있다. 력사와 현실은 자제의 강력한 군사적힘이 민족의 운명을 지키고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는 길을 열어준다것을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이 최절정에 달하고있는 오늘날의 존엄한 정세하에서 자위적군사력을 백방으로 강화할 의지를 더욱 굳게 버리는 정철

재일본조선청년동맹대표단 성원들 걱정 도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일찍이 일본에 사는 조선공민들의 인권과 존엄,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옹호에 깊은 관심을 품어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재일동포들의 참다운 해외교포조직인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를 무어주시었다.

총련의 결성은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과 재일동포들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사건이였다.

청년 위대한 수령님을 떠나서 재일동포들의 참다운 민족적리위와 행복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대표단단원 정희철은 재일동포들에 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자애로운 사랑과 은 정은 김정은대원수님에 의하여 그대로 이어졌다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총련을 대없이 귀중히 여기며 수령님의 총련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바치신 장군님의 끝없는 헌신은 우리의 삶의 심장속에 위대한 사랑의 서사시로 가슴뜨겁게 새겨져있다.

재일조선인운동이 걸어온 자랑스러운 길은 우리 민족의 령도를 총칭하게 받들어 총련의 대, 애국의 대를 뜻하여 이어나 가며 재일조선인운동의 새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성스러운 투쟁에 앞장서나갔었다.

어떻게 《북인권법》을 또다시 들고나오고있는것은 북을 자극하고 집권자를 《북풍》선동으로 벗어나려는 서훈제리 연극을 잘때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남조선의 민주인성평화통일주권권대가 2일 피괴패당의 대결소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박근혜가 남북사이 비방장상을 중지하라고 함의하고 들어가지마자 편이 북을 자극하는 발언을 쏟아놓으며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갔다고 규탄하였다.

이번에 오바마와의 회담때에 《추가제재》 등 자국적인 발언들로 북의 반발을 초래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최근에는 리적선침철사고로 궁지에 몰리게 되자 산투적인 《북풍》선동으로 위기의 탈출구를 찾으려 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가명당 《북풍》선동은 조국내외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있다. 대결소동과 전쟁음모로 얼룩진 《정권의 파멸》이다. 박근혜는 지금이라도 정진차리고 안보도박, 《북풍》선동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김정은대원수님도 상상해본적 없는 거대한 국민의 저항을 받게 될것이다.

가명당 《북인권법》을 또다시 들고나오고있는것은 북을 자극하고 집권자를 《북풍》선동으로 벗어나려는 서훈제리 연극을 잘때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남조선의 민주인성평화통일주권권대가 2일 피괴패당의 대결소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박근혜가 남북사이 비방장상을 중지하라고 함의하고 들어가지마자 편이 북을 자극하는 발언을 쏟아놓으며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갔다고 규탄하였다.

이번에 오바마와의 회담때에 《추가제재》 등 자국적인 발언들로 북의 반발을 초래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최근에는 리적선침철사고로 궁지에 몰리게 되자 산투적인 《북풍》선동으로 위기의 탈출구를 찾으려 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가명당 《북풍》선동은 조국내외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있다. 대결소동과 전쟁음모로 얼룩진 《정권의 파멸》이다. 박근혜는 지금이라도 정진차리고 안보도박, 《북풍》선동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김정은대원수님도 상상해본적 없는 거대한 국민의 저항을 받게 될것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얼마전 피괴법정이 1995년 평양을 방문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어버이수령님대결의 경의를 표시한 남조선주변에 공격 1년, 자격적 1년을 선고하고 구속하는 파소적망동짓을 한것과 관련하여 9일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1062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다.

피괴패당은 그사이 도이월판도 제 체류하고있던 그가 지난해 1월 남조선으로 들어오자 《보안법》위반혐의로 기소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상대에 처박해오다가 이번에도 다시 선전활동에 동조했다고 《북의 선전활동에 동조했다고》, 《노니 튀김을 그물 채취할참에 가두었다》.

박근혜패당이 인류의 태양, 민족의 어버이로 세계인민들과 온 겨레의 마음속에 영생하고 계시는 절세의 위인대결의 경의를 표시한 주민에게 파소적목자를 감행한것은 우리의 최고존엄에 대한 도전이고 극악한 도발이며 민족의 태양을 따르는 남침적대결의 한걸음은 저항을 짓밟는 용납 못할 범죄이다.

백악기 조국을 찾아주시고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친신 어버이수령님께 삼가 경의를 표시하는것은 민족의 구수성으로 보나 조상전래의 미풍양속으로 보나 지극히 정당하고 도덕적인 행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패당이 20년전에 있는 의로운 소행까지 소급하여 고통을 준것은 이따말로 동족대결에 환강이 된 추악한 페르페타의 무리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박근혜로 말하면 지난 2011년 12월 민족의 대국상대에 《원칙》이 있는 대승이다. 《남남갈등》이 이 워니 하는 고약한 소리를 쉼쳐대며 남조선 각계층의 조의방과 조의를 거부하고 크나큰 상상의 이름에 피눈물을 흘리리라는 우리 인민을 악랄하게 모독한 천하무런이대결 미치광이다.

인간의 초보적인 리성과 동포애는 물론 인륜과 천물마저 저버리고 동족대결에만 미쳐달리는 이런 악한들이 그 무수 《선리》와 《판계》, 《통일》에 대해 운운하는것이아말로 언어도 단언도 내외어른에 대한 참을수 없는 무용이다.

조상전래의 례법법도 모르고 인간기개를 그만둔 야만인 무리, 동족대결의식이 배속에게까지 짖들어온 박근혜패당의 말장수들이라 하여 오늘 보치며 마땅히 되었던

본사기자

일제의 죄악을 청산할 때까지 투쟁 할것 이 라고 언명

남조선의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성원들, 청소년들을 비롯한 각계층이 경기도 수원에서 3일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을 향한 평화비대막식을 가졌다.

2011년 12월 14일 남조선의 각계층은 일제의 죄악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의 하나로 서울의 일본대사관앞에서 처음으로 평화비행 세웠다.

그후 경상남도 거제와 경기도 고양, 성남이 편이여 평화비행이 세우려 만일투쟁이 남조선전역에서 더욱 세차게 전개되고있는 가운데 수원이 또다시 평화비행이 세웠다.

제막식에서 발언자들은 우리 민족이 일본에 요구하는것은 다시는 과거죄악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며 법적으로 사죄하고 배상하는것이라고 말하였다.

앞으로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인권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이며 이를 세계적범위로 확대시켜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들은 일제의 죄악을 청산할 때까지 만일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갈것이라고 호소하였다.

반인권적인 군사교육중지를 요구

남조선의 참여연대가 피괴당국의 반인권적인 군사교육을 중지할것을 요구하여 4일 문평을 발표하였다.

문평은 지난해 충청남도 태안에서 당국의 강압적인 군사교육 때문에 여러 학생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는데 대해 언명하였다. 그로부터 2년 300일이 되어오지만 현재까지 진상 규명과 책임자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있어 유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이 계속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당시의 참사는 학생들에게 대한 반인권적인 태도로 빚어진 것이라고 까맣다.

당국이 반인권적인 군사교육을 중지하고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처벌이 내사야 한다고 문평은 강조하였다.

단 평 거꾸로 들어야 등탈았다

은 남조선당국이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리적 《세월호》의 침몰사건으로 위수중생분위기에 휩싸여있는데 며칠전 서울지하철도에서 또 큰 사고가 일어났다. 고장으로 멎어선 전동차를 뒤따르던 전동차가 들이받았었다. 이로 하여 승객들속에서 술한 부상자가 나왔다고 한다. 구조를 기다린탓에 술한 아이들이 생중독을 당한것이 불과 몇그제였다. 이런 판에 누가 기다리라는 안내방송을 믿었는가. 두번이나 누가 기다리라고 주먹질하며 사고현장을 황황히 빠져나온 사람들이는 그에서 안내도의 숨을 내쉬었다.

결국 《세월호》침몰사건은 사람들에게 남조선에서는 모든것을 거꾸로 들어야 등탈했다는 인식만 굳혀주었다. 이것이 바로 남조선사회이다. 허영민

괴뢰패당의 동족대결책동 규탄

가명당 《북인권법》을 또다시 들고나오고있는것은 북을 자극하고 집권자를 《북풍》선동으로 벗어나려는 서훈제리 연극을 잘때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남조선의 민주인성평화통일주권권대가 2일 피괴패당의 대결소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박근혜가 남북사이 비방장상을 중지하라고 함의하고 들어가지마자 편이 북을 자극하는 발언을 쏟아놓으며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갔다고 규탄하였다.

이번에 오바마와의 회담때에 《추가제재》 등 자국적인 발언들로 북의 반발을 초래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최근에는 리적선침철사고로 궁지에 몰리게 되자 산투적인 《북풍》선동으로 위기의 탈출구를 찾으려 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가명당 《북풍》선동은 조국내외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있다. 대결소동과 전쟁음모로 얼룩진 《정권의 파멸》이다. 박근혜는 지금이라도 정진차리고 안보도박, 《북풍》선동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김정은대원수님도 상상해본적 없는 거대한 국민의 저항을 받게 될것이다.

가명당 《북인권법》을 또다시 들고나오고있는것은 북을 자극하고 집권자를 《북풍》선동으로 벗어나려는 서훈제리 연극을 잘때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남조선의 민주인성평화통일주권권대가 2일 피괴패당의 대결소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박근혜가 남북사이 비방장상을 중지하라고 함의하고 들어가지마자 편이 북을 자극하는 발언을 쏟아놓으며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갔다고 규탄하였다.

이번에 오바마와의 회담때에 《추가제재》 등 자국적인 발언들로 북의 반발을 초래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최근에는 리적선침철사고로 궁지에 몰리게 되자 산투적인 《북풍》선동으로 위기의 탈출구를 찾으려 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가명당 《북풍》선동은 조국내외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있다. 대결소동과 전쟁음모로 얼룩진 《정권의 파멸》이다. 박근혜는 지금이라도 정진차리고 안보도박, 《북풍》선동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김정은대원수님도 상상해본적 없는 거대한 국민의 저항을 받게 될것이다.

박근혜 《정권》 심판투쟁에 나설것을 호소

남조선의 참여연대가 얼마전 문평을 발표하여 리적선침철사고의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박근혜패당을 규탄하였다.

문평은 박근혜가 국민앞에서 사과할데 대한 각계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국무회의》라는것을 벌려놓고 기만적인 사과놀음을 연출한데 대해 언명하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과 청와대보좌진들이 《세월호》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책임회피에 급급하며 실종자들에 대한 구조를 외면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박근혜가 형식적인 사과에 메달릴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책임이 무엇인지, 유가족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리적선침철사고와 관련하여 《개조》니, 《새내내치기》니 하는 따위들을 들고나올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대책을 세워야 할것이라고 문평은 강조하였다.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가 《세월호》침몰사고를 외면하는 피괴당국을 규탄하여 7일 사설을 발표하였다. 사설은 박근혜가 리적선침철사고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고 있는 음모들을 반대하는 음모들을 꾸미고있는데 대해 까발리고 그는 지역나라들이 단결하여 이를 짓부시기 위한 옳은 방도를 찾아야 한다

미국에서 힘 집권자에게 대한 불신 고조

미국에서 그동안 정책을 추구하고있는 현 집권자에 대한 사회적불신이 고조되고있다. 최근 이 나라의 ABC방송이 진행한 전국적인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4월에 현 집권자에 대한 지지가 5% 떨어졌다고 한다. 이례 최저수준에 이르렀다. [조선중앙통신]

남조선에서 오는 6월 4일에 각 지역 단체장들과 의원들을 선거하는 지방자치선거가 진행되게 된다. 야당세력은 이번 선거를 민주주의와 민생을 파괴한 《정권》을 심판하는 중요시기로 삼고 민의를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있다. 한편 《세누리당》은 지방자치선거를 지방정권(민선)으로 규정하면서 야당세력의 공세를 차단하고 서술을 비롯한 주요직역들의 지치단체장리들을 다시 차지하려 하고있다. 이로 하여 지극 남조선에서는 선거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각 정세력들의 치열한 대결이 벌어지고있다.

야당간의 대결은 물론 여권의 내부싸움도 격렬하다. 우선 《세누리당》내에서 지방자치선거에 후보로 나선 인물들사이에서 대결이 벌어지고있다. 서술시정리들을 노리는 정풍총리 전 피괴국무총리 김창식은 결론으로는 《선리의 정경》을 표방하면서 서술이 앞서는 서로의 부정부패 의혹을 들추며 상대방을 깎아내리고있다. 이런 속에 얼마전 정풍총리는 김창식을 불법선거운동을 벌렸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김창식이 박근혜가 자기의 출마를 권고하였다고 발언한것도 정풍총리를 자극하고있다. 정진사설을 소란한 《세누리당》은 야권연합으로 더욱 몰려

이러한 속에 피괴경찰당국이 정보원의 서술시정권한사건 증거조작에 대한 최홍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정보원장 남태준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다. 남조선 각계의 분노는 도처에서 치솟았다. 남태준과 박근혜가 편이여 나서서 간첩사건증거조작과 관련한 《사과》놀음을 벌려놓았지만 민심의 격분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어 전라남도 진도군 주변해상에서 사상 최대의 리적선침철사고 발생사고 사고수습에 나섰다는 피괴당국의 무능력과 무책임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자 집권세력에 대한 인민들의 저주와 울분의 목소리는 더욱 무겁게 터져나오고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현 집권세력에 대한 민심의 분노한 기세를 반영하여 이번 지방자치선거가 집권세력의 약점을 심판하는 계기로 되게 할것을 다짐하면서 《세월호》대침몰사과와 관련한 의혹을 풀기 위해 단결하여 규탄하고있다.

선거를 앞두고 각 정세력들 사이의 싸움이 날로 치열해지는 속에 민심을 추미어 민주주의와 근대주의의 생존권을 여지없이 짓밟는 박근혜패당을 대한 인민들의 결사의 심판의지도 더욱 고조되고있다.

본사기자 리성호

